



*
남녘의 봄이 오는 소리
- 곡성 두가교에서 진도대교까지 -
*



해마다 봄은 남녘 2월의 햇살과 바람결에서 시작된다. 2월 4일이 입춘이었으니 이미 봄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월말이면 지리산 고로쇠약수가 나오고 매화와 산수유 꽃이 본격적으로 피어나면서 남녘의 봄은 환하게 열린다. 이런 남녘의 봄을 걸쭉하게 만나보려면 곡성 두가교에서 진도대교라는, 명물 강다리과 바다다리 사이로 남녘을 횡단하는 길이 아주 좋다.



섬진강은 한국의 강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역에 산업화가 덜 되어 그렇다. 섬진강 물줄기가 지나는 길목에서 가장 강다운 대목은 곡성이다. 섬진강 중류에 해당하는 곳이기엔 강다운 휘어짐과 푸르름을 제대로 보여준다. 곡성 섬진강 가운데 부분에 두가교라는 다리가 있다. 곡성읍에서 압록까지 가는 길 중간 지점이다. 두가교는 생김새가 아름다우며 샌프란시스코 현수교와 닮았다. 바닥에 철판을 깔 흔들다리여서 연인들이 건너갈 때 부둥켜안거나 손을 잡고 가야 하므로 서먹서먹한 사이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가교는 '연인의 다리'라 하여 데이트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 두가교 아래쪽 압록 물줄기에 떠있는 청둥오리. 강물줄기의 색깔이 청둥오리의 목 색깔과 같다고 하여 '압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 낙안읍성 금둔사 홍매화. 가장 일찍 피는 매화로 이미 지난 12월 꽃망울을 틔웠다.



* 가장 오리떼

두가고 아래엔 여름철 강수욕장이 있는 ‘압록’이 있다. 압록강의 이름과 같은 압록이라는 이름은 청동오리의 목색갈처럼 질푸른 곳에 붙여진다고 하는데, 요즘 압록 일대엔 길 떠나기를 앞둔 청동오리들이 짝을 지어 마지막 에너지 충전을 하고 있다.

압록에서 석곡나들목을 통해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승주(선암사)나들목으로 나가 상사호를 왼쪽으로 끼고 고개를 돌 넘으면 낙안읍성이 아래로 보이는 곳에 금둔사라는 절이 있다. 이곳엔 지금 홍매화가 피어있다. 금둔사 홍매화는 일찍 피기로 유명하다. 이미 지난 12월에 피어 추위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꽃잎이 구겨진 것들도 있다. 아무튼 엄동설한에 매향을 내뿜으며 분홍색 입술로 세상에 파스함을 불어 넣어주는 미덕이 감동스럽게 다가온다.

금둔사에서 벌교쪽으로 나와 순천-해남 국도를 타고 해남으로 와서 황산면 고천암호 저수지에 들른다. 이곳은 해마다 10만~20만 마리의 가창오리떼가 겨울나기를 하는 곳이다. 요즘엔 5만 여 마리가 남아 마지막 ‘귀향’ 훈련을 하고 있다. 고천암호 주변 논에는 200여 마리의 굼직한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 특유의 우렁찬 쇠소리 목청을 지르며 이삭줍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사람들이 웬만큼 다가가도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망보는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 탓이기도 하지만 워낙 몸집이 무거워 한 번 떠오르는데 적잖이 많은 힘이 들기 때문이다. 기러기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 지프차를 탄 밀렵꾼들이 대낮에도 들판 여기저기에서 횡행하고 있다.

당국이나 민간인 여느 누구도 이들을 단속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마치 밀렵꾼들의 천국처럼



* 섬진강 두가교, 한국 강다리 가운데 가장 운치있는 다리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보여서 이 겨울에 얼마나 많은 철새들이 이 땅에 목숨을 잃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환경운동단체들이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실질적인 감시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진도대교는 고천암호에서 해남~진도간 국도를 타고 10여분을 가면 있다. 원래 외길 다리였

던 진도대교는 지금 옆에 새 다리가 완공되어 쌍둥이 다리가 되었다. 진도대교가 놓인 대목은 '울돌목'이라 하여 썰물 때 물살의 세기가 살인적인 곳이다. 이 빠른 유속을 이용하여 이순신 장군이 아군 선박 12척으로 왜적선 수 백척을 무찌른 명량대첩의 현장이기도 하다. 다관이 들어서 있다. ☹



교통 및 숙박...

진도대교에서 올라올 때는 해남 화원쪽으로 나와 영암호 방조계를 타고 목포로 나와 거해 안고속도로를 탄다. 해남읍 천일식당 석갈비백반(1인분 1만8000원)이나 목포 호산식당 낙지음식이 유명하다. 숙박은 해남읍, 진도읍, 목포시 어느 곳이나 좋다.